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249-285  
<https://doi.org/10.29212/mh.2022..122.24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

윤병모 |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제·연·산융과 고조선의 관계
  3. 연과 제의 상호공격
  4. 연의 동호와 고조선 공격
  5. 진과 고조선의 전쟁
  6. 맺음말

**초 록** 연과 제 그리고 산융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이 산융의 공격을 받자 제가 연을 통해 산융을 공격하거나 산융이 연을 통해 제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연은 산융과 제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다. 연을 괴롭힌 산융은 춘추시대 중 말기에 사라지고 대신 동호가 등장한다. 연과 제는 상호 견제 또는 직접 전쟁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전국책』에 의하면 당시 연의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었다. 이중에 호타와 역수의 기재 순서는 趙가 燕을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 기록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으로 종족명과 지명인 조선과 요동도 그 순서대로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의 동호와 고조선에 대한 침략은 연이 제를 정벌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과 가장 근접해 있던 국가는 조선으로 인정된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연의 전성기 때 위만이 진번을 복속시킨 사실이 나온다. 『사기』 조선열전에서 나오는 진번은 연의 장성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사기』에는 한나라 군이 상곡 12현, 우북평 16현, 요서와 요동 29현, 어양 22현을 평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마천이 당대의 사실을 마치 옛일처럼 소급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요동의 위치가 난하 유역에서 대릉하 지역으로 옮겨 간 시점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이후라고 생각된다. 요동외요는 요동의 밖에 있는 요를 지칭하며 진 장성은 요하 북쪽 곧 지금의 서요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진한교체기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연의 동쪽을 빼앗는다. 곧 조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동외요 안쪽인 곧 서쪽을 조선이 점령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조선, 연, 산융, 제, 진, 진번, 동호, 요동, 요서, 양평

(원고투고일 : 2022. 1. 10,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 1. 머리말

위만조선과 한의 전쟁에 대한 연구는 『사기』 조선열전을 기본자료로 할 수 있지만 燕·秦과 고조선의 전쟁은 그렇지 못하다.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에 대한 연구에서 사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각종 선진문헌이나 기타 문헌에 흩어져 있는 사료들을 모아 본다면 어느 정도 윤곽은 알아 볼 수 있다.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연이 연의 동북방에 있던 예맥·조선·진번이 무역관계를 통해 이득을 얻었으며 굳이 적대관계를 이루지 않았다는 주장<sup>1)</sup>과 연은 동호와 조선의 정치 경제 부문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였다며 이들에 대한 공격은 연이 제를 공격한 이후에나 이루어졌다는 견해<sup>2)</sup>가 있다. 연이 동호와 조선을 정벌한 다음 5군을 두고 군현제를 실시하였다는 견해<sup>3)</sup>, 연이 동호를 격파하고 조선을 침략하여 천산산맥 일대까지 영역을 확보하였다는 견해<sup>4)</sup>와 진개의 침입으로 요서의 조선후국은 멸망하여 연에 포함되었다는 연구<sup>5)</sup>가 있다. 진개가 침공한 지역은 조선의 서방인 동요하 지역이라는 주장<sup>6)</sup>과 연의 전성기에 연이 조선을 친 첫 상대는

- 
- 1) 배진영, 「春秋時期 燕國 對外關係의 變化」, 『中國史研究』 17, 2002, 18쪽.
  - 2) 배진영,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 25, 2003, 23~25쪽.
  - 3) 金南中, 「燕·秦의 遼東統治의 限界와 古朝鮮의 遼東 回復」, 『白山學報』 62, 2002, 54쪽.
  - 4) 오현수, 「사기 조선열전 기재 ‘秦故空地上下郡’에 대한 검토」, 『韓國史學報』 70, 2018, 68쪽.
  - 5) 오현수,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韓國史學報』 61, 2015, 48쪽.
  - 6) 박대재,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5, 2017, 55쪽.

요서지역에 위치한 진번이라는 견해<sup>7)</sup>도 있다. 진번의 실체와 요동의 범위 문제에 주목하며 고조선이 요서지역에 연맹을 형성하여 연과 대립한 것으로 보아 연소왕대 연과 고조선은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연구<sup>8)</sup>도 있다. 고조선과 진의 대외관계를 살펴 보며 전쟁의 원인 및 경계 변화에 주목해 진이 고조선을 침공한 이유는 연의 전성기 때 영토였던 요동을 수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sup>9)</sup>도 있다. 연이 동호와 고조선을 공격하기 이전에 제를 공격했으며 연의 고조선 공격을 기원전 282년으로 보는 견해<sup>10)</sup>도 있지만 연이 동호를 공격한 시점이 연소왕 이전인 기원전 323년 이전에 일어난 일로 보는 주장<sup>11)</sup>도 있다. 그렇지만 연진개의 북벌은 제에 대한 공격을 마무리한 기원전 282~280년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현재 다수를 이룬다.<sup>12)</sup> 한편 통사적 입장에서 연과 고조선의 전쟁을 다룬 경우<sup>13)</sup>도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전쟁사와 관계사 입장에서 연구된 것<sup>14)</sup>과 중국학계는 묘위가 중심이 되어 위만조선 이전 시기를 다룬 연구<sup>15)</sup>가

- 
- 7) 윤병모, 「건창 동대장자유적과 고조선」, 『유라시아문화』 4, 유라시아문화학회, 2021, 73쪽.
- 8) 조원진,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先史와 古代』 62, 2020, 35쪽.
- 9) 조원진,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 『사학연구』 129, 2018, 198쪽.
- 10) 박준형,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 108, 2012, 18쪽.
- 11) 이광명, 「전국 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2019, 102쪽.
- 12) 陳平, 『燕史紀事編年會按』 下冊, 北京大學出版社, 1995, 213쪽; 배진영,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中國史研究』 36, 2005, 36쪽; 박대제,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66쪽; 배진영, 『고대 北京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2009, 325쪽; 宋眞,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76, 2014, 62쪽.
- 13) 서인한,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33~45쪽.
- 14) 전준현,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9~18쪽; 전대준, 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56~161쪽.
- 15) 苗威, 『古朝鮮研究』, 香港亞洲出版社, 2006, 129~143쪽; 苗威, 『箕氏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28~31쪽.

있다.

이처럼 연과 고조선 또는 진과 고조선의 전쟁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대부분 동호와의 관계 속에서 연과 고조선의 전쟁이나 교섭을 다루거나 연과 제의 교역 관계 속에서 연과 고조선의 전쟁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진의 경우도 대외 관계 속에 경계 변화나 전쟁을 다룬 경우에 그치고 있다. 결국 연과 진의 고조선에 대한 전쟁 연구는 교역이나 관계사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료부족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인데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과 고조선의 관계 또 진과 고조선의 관계 연구를 참고하고 이를 한데 묶어 살펴보려는 데 있다. 곧 연과 진의 고조선에 대한 관계나 전쟁을 하나로 묶는 통괄적인 검토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도 역시 사료가 부족하다보니 상호관계나 인접국가에 대한 관계 또는 교역 등을 검토하며 전쟁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연과 진의 고조선에 대한 전쟁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제·연·산융과 고조선의 관계

연과 고조선의 전쟁을 알아보기 이전에 연을 중심으로 연과 고조선의 관계 또 제와 고조선의 관계, 연과 제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조선을 중심축으로 놓고 연과 제 그리고 산융, 동호 등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조선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사료가 없다. 때문에 연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와 전쟁을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조선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관자』를 중심으로 고조선과 제의 관계를 살펴보자.

A-①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건데 해내에 옥폐가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듣기를 청한다.’ 관자가 대답하였다. ‘음산의 孺珉이 한 가지입니다. 燕 자산의 백금이 한 가지입니다. 發朝鮮의 文皮가 한가지입니다.’<sup>16)</sup>

A-② 제나라는 渠展의 소금이 있고 연나라에는 요동의 구어 만든 소금이 있습니다.<sup>17)</sup>

A-③ 發朝鮮이 조공하지 않는 것은, 文皮와 毳服을 돈으로 생각하여 청하기 때문입니다. … 한 장의 문피에 적당한 가격을 쳐준다면 8천리 떨어진 發朝鮮이 조공해 올 것입니다.<sup>18)</sup>

조선이라는 명칭이 중국문헌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은 『관자』라는 책이다. 『관자』는 기원전 7세기 춘추시대 중기의 사실이 전국시대에 와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A-①과 A-③ 기사에서 나오는 발에 대해 이를 貊으로 보고 발조선을 맥조선으로 보기도 한다.<sup>19)</sup> 또 발이 맥족과 관련이 있다며 발조선은 예맥의 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sup>20)</sup> 하지만 『관자』에 발조선이 나오고 『사기』에는 發息慎<sup>21)</sup>이 나오며 『일주서』 왕회해<sup>22)</sup>에도 發人이 나와 발은 어느 특정한 종족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여기서 나오는 發에 대해서는 맥이나 예맥으로

16) 『管子』 卷23, 揆度,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筭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陰山之孺珉 一筭也 燕之紫山白金 一筭也 發朝鮮之文皮 一筭也”

17) 『管子』 卷23 地數, “齊有渠展之鹽 燕有遼東之煮”

18) 『管子』 卷24 輕重甲, “發朝鮮不朝 請文皮毳服而以爲幣乎 … 一豹之皮 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19) 박대재, 「고조선과 제의 해상교류와 요동」, 『한국사학보』 2014, 16쪽.

20) 오현수, 「『管子』에 등장하는 ‘穢貉’과 ‘發朝鮮’의 역사적 실체」, 『사림』 43, 2012, 132쪽.

21) 『史記』 卷1 五帝本紀, “北山戎 發息慎”

22) 『逸周書』 卷7 王會解, “發人 麋鹿者”

볼 것이 아니고 發을 勃 즉 渤海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發朝鮮은 발해 연안에 위치한 발해의 조선으로 볼 수 있다. 또 A-①과 A-③에서 발조선에 文皮가 난다며 이를 齊에서 수입한 사실도 찾아볼 수 있다. A-②에는 제에는 거전의 소금이 있고 연에는 요동의 구어 만든 소금이 있다. 원문에 ‘燕之’가 아니고 ‘燕有’인 이상 요동의 구어 만든 소금은 연이 요동에 있는 채지 세력에서 수입하여 연이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발해를 두고 남쪽의 제와 서쪽의 연 그리고 북쪽의 조선이 교역상 또는 상호 연결과 대립을 이루는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과 산융의 관계를 살펴보자.

춘추시대 연의 북방에는 산융과 동호가 있었다. 『사기』 흉노열전에는 동호가 먼저 나오고 산융이 나중에 출현하나 이중 산융은 춘추시기에 나타나고 동호는 전국시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진다. 춘추시기에 산융은 연에 자주 침범하여 연을 괴롭혔다. 이 당시 제는 제환공이 있어 패업을 이루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때 약소국인 연은 이웃나라인 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산융이 연에 침입한 것은 기원전 664년이고 제환공이 산융을 공격한 것은 기원전 663년의 일이다.<sup>23)</sup> 다음의 사료를 보자.

A-④ 환공 23년에 산융이 燕을 벌하자 연이 齊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제환공이 연을 구해 마침내 산융을 정벌하고 고죽에 이르고 나서야 돌아왔다.<sup>24)</sup>

23) 배진영, 앞의 논문, 2002, 3쪽.

24)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桓公二十三年 山戎伐燕 燕告急于齊 齊桓公救燕 遂伐山戎 至于孤竹而還”

A-⑤마침내 산융을 북벌하여 슈지를 공격하고 고죽을 친 후 남쪽으로 돌아왔다. 해빈의 제후가 감히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sup>25)</sup>

A-⑥장공 30년 겨울에 魯濟에서 만나 산융 칠 것을 모의하였다. 이는 燕에게 病이 되기 때문이다.<sup>26)</sup>

A-⑦산융이 燕을 넘어서 齊를 정벌하였다. … 산융이 연을 정벌하자 제환공이 산융을 정벌하였고 산융은 도주하였다.<sup>27)</sup>

A-⑧대부가 말하기를 제환공은 燕을 넘어서 산융을 정벌하고, 고죽을 치고 슈지를 공격하였다.<sup>28)</sup>

이상의 기사는 산융의 침입을 연이 자체적으로 막지 못하고 이웃나라인 제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나타낸다. 제는 산융 뿐 만아니라 영지와 고죽을 함께 친 것으로 나온다. 산융은 연뿐만 아니라 제에도 침공하는데 이럴 경우 연을 통해 제에 갔으며 또한 제가 산융을 칠 때에도 연을 통해 정벌한다. 이처럼 연은 산융과 제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다.<sup>29)</sup> A-⑥의 기사에서 북방 유목민족인 산융은 연에게는 병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연을 괴롭힌 산융은 춘추시대 중 말기에 사라지고<sup>30)</sup> 대신 동호가 등장하게 된다.

A-⑨대개 燕은 勃海와 碣石 사이에 위치한 큰 도회지이다. 남쪽으로는 齊와 趙에 통하고 동북으로는 胡와 접해 있다. 上谷에서 요동까지는 땅은 멀고 인민이

25) 『國語』 齊語, “遂北伐山戎, 剗令支, 斬孤竹而南歸, 海濱諸侯莫敢不來服”

26) 『左傳』 卷3 莊公三十年 “莊公三十年冬 遇于魯濟 謀山戎也, 以其病燕故也”

27) 『史記』 卷110 匈奴列傳, “山戎越燕而伐齊 … 山戎伐燕 齊桓公北伐山戎 山戎走”

28) 『鹽鐵論』 伐攻, “大夫曰 齊桓公越燕伐山戎 破孤竹 殘令支”

29) 『戰國策』 卷29 燕策1, “燕王曰 寡人國小 西迫強秦 南近齊 趙 齊 趙 強國也”

30) 배진영, 앞의 책, 2009, 133쪽.



적었으며 자주 침입을 당하였다. 그들은 趙 및 代와 유사하고 백성들은 독수리처럼 사납고 사려가 얕았다. 이곳에서는 물고기와 소금, 대추, 밤 등이 많이 난다. 북쪽은 오환 부여와 접해 있고, 동쪽은 穢貉朝鮮 眞番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차지하였다.<sup>31)</sup>

연은 주변민족에게 침략당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도 했지만 반면에 이들과 무역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었다. 북방에 오환과 부여가 있고 동쪽에는 예맥조선·진번이 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연은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상곡 이동에 예맥조선이 접하였다는 것은 동호의 시기에나 나타난다.<sup>32)</sup> A-⑨의 상곡에서 요동까지는 땅은 넓으나 인구가 적었으며 대신에 물고기와 소금, 대추, 밤 등이 많이 산출되는 점으로 보아 연은 이곳에 거주하는 동북방 민족들과 교역을 통해 이익을 독차지하였다. 이는 B-②의 『사기』에서 기원전 284년인 연소왕 28년에 연국의 생활이 부유해졌다는 내용인 ‘燕國殷富’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소왕의 개혁정책이 성공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sup>33)</sup>

한편 남쪽의 제는 A-①과 A-③에서 보듯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통해 조선의 문피를 교역한 사실이 드러난다. 제가 동북방의 민족들과 거래를 하려면 연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연의 중개무역을 통해 입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연과 제는 상호 견제 또는 직접 전쟁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단

31) 『史記』 卷129 貨殖列傳, “夫燕亦勃碣之間 一都會也 南通齊趙 東北邊胡 上谷至遼東地踔遠 人民希數被寇 大與趙代俗相類 而民雕悍少慮 有魚鹽棗栗之饒 北鄰烏桓 夫餘 東縮穢貉朝鮮眞番之利”

32) 『史記』 卷110 匈奴列傳, “然至冒頓而匈奴最彊大 盡服從北夷 而南與中國為敵國 其世傳國官號乃可得而記 …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

33) 배진영, 앞의 논문, 2003, 7쪽.

계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연과 제의 상호공격

기원전 3백년 대를 전후하여 중국 동북 지역에 연과 제라는 호적수가 존재한다. 연·진과 고조선의 대립과 전쟁관계를 알려면 연과 제의 관계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립과 견제 혹은 교류를 통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연과 제의 뒤에는 조선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시대에 들어와 연은 이제 전국칠웅의 하나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왕 嚳가 즉위한지 5년인 기원전 316년에 대규모 내란이 발생하여 연은 일대의 위기에 처해진다. 곧 연왕 哿와 장군 市被가 내란 속에서 죽어갔다. 맹자가 제나라 湣王에게 이 기회에 연을 정벌하는 것은 주 문왕과 무왕이 상을 정벌한 것과 같은 호기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였다. 민왕이 제나라 장군인 장자에게 5도의 군사와 북방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연의 군인은 전투하지 않았고 성문도 닫지 않았으며 연왕 哿가 죽자 제가 대승을 거둔다.<sup>34)</sup> 제는 연의 종묘를 파괴하거나 重器<sup>35)</sup>와 보물을 싣고 돌아가는 등 연을 도륙내었다.<sup>36)</sup> 이 와중에 태자 평도 연왕 哿와 함께 죽었는데 그것이 연 哿왕 7년임으로 기원전 314년에 해당한다.<sup>37)</sup> 그 후로 여러 나라의 간섭으로 2년 뒤에 제는 연에서

34) 『史記』 卷34 燕召公世家 燕嚳, “孟軻謂齊王曰 今伐燕 此文武之時 不可實也 王因令章子將五都之兵以因北地之衆以伐燕 士卒不戰 城門不閉 燕君嚳死 齊大勝”

35) 『孟子』 梁惠王下, “毀其宗廟 遷其重器 如之何其可也 天下固畏齊之疆也”

36) 『新序』 雜事3 “燕易王時 國大亂 齊閔王興師伐燕 屠燕國 載其寶器而歸”

37) 『史記』 卷15 六國年表 燕王嚳 7年, “君嚳及太子相子之皆死”

철수하고 조 무령왕은 공자 職을 韓에서 맞아들여<sup>38)</sup> 연소왕으로 등장하게 된다.

B-①연소왕은 破燕 직후 즉위하였다. 몸을 낮추고 두둑한 재물로 현자를 초빙하였다. … 이에 소왕은 괘외를 위해 궁을 개축하고 그를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다. 악의가 위로부터 달려왔고 추연이 제로부터 달려왔으며 극신이 조로부터 달려오는 등 많은 현사들이 앞을 다투어 연에 몰려왔다.<sup>39)</sup>

연소왕은 『설원』에서 괘외의 질문에 대답하길 ‘연은 땅이 좁고 인구가 적으며 제가 8개성을 탈취해 갔다.’<sup>40)</sup>고 하며 제에 대한 설욕을 준비한다. 여기서 연의 장수 진개가 동호를 습격한 시점을 연소왕 이전인 기원전 323년의 이전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견해<sup>41)</sup>도 있지만 이상의 『설원』에서 괘외에 대한 연소왕의 답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곧 연소왕은 연이 ‘땅이 좁고 인구가 적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의 동호에 대한 공격은 기원전 284년인 연소왕 28년 이후 B-②의 ‘燕國殷富’의 시점일 것이다. ‘殷富’는 넉넉하고 풍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연소왕은 즉위 후에 각국에서 온 인재들을 중용하며 연국 개혁에 나선다. 즉위 후 부국강병을 추진하던 연소왕은 기원전 284년 드디어 제를 정벌한다. 재상 악의가 진, 한, 위, 조, 연 등 5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공격하였다.<sup>42)</sup>

38) 『史記』 卷43 趙世家, “王召公子職於韓 立以為燕王 使樂池送之”

39) 『史記』 卷34 燕召公世家, “燕昭王于破燕之後即位 卑身厚幣 以招賢者 … 于是昭王爲隗改築宮而師事之 樂毅自魏往 鄒衍自齊往 劇辛自趙往 士爭趨燕”

40) 『說苑』 君道, “燕昭王問於郭隗曰 寡人地狹人寡 齊人削取八城”

41) 이광명, 앞의 논문, 2019, 102쪽.

42) 『史記』 卷43, 趙世家, “惠文王十四年 相國樂毅將趙 秦 韓 魏 燕攻齊”

제가 패퇴하니 연은 단독으로 깊숙이 진공하여 제의 수도인 임치를 점령하였다.

B-②연소왕 28년에 연국은 부유해지고 사졸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아갔다. 그래서 악의를 상장군으로 임명하여 진, 초, 한, 위, 조 5국이 모의해서 제를 공격했다. 제 병사는 전쟁에 패해 뿔뿔이 흩어지고 민왕은 도성을 버리고 외지로 달아났다. 오직 연나라 병사들만은 패주하던 제병사를 쫓아가서 임치에 진입하여 제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노획하였으며 궁실과 종묘를 불살랐다. 제나라의 여러 성중에 함락되지 않은 것은 오직 요, 거, 즉묵 밖에 없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연에 속하게 하였다. 그런 상태가 6년간이나 지속되었다.<sup>43)</sup>

B-③장국군 악의가 연소왕을 위해 5국을 연합시켜 제를 공격하여 70여성을 빼앗아 그것을 모두 연나라 군현으로 삼았다. 아직 나머지 3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을 때에 그만 연소왕이 죽고 말았다. … 제나라 전단은 마침내 새로 된 연의 장수 기겁을 속여 연의 군대를 대패시켜 버리고 빼앗겼던 70여 성을 도로 찾아 수복하였다.<sup>44)</sup>

연의 공격에 제는 전쟁에서 패해 뿔뿔이 흩어지고 제 민왕은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5개 연합국 중에 오직 연만이 제의 도성인 임치에 단독 진입해 제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보물을 노획

43) 『史記』 卷34 燕召公世家,“(燕昭王)二十八年 燕國殷富 士卒樂軼輕戰 於是遂以樂毅為上將軍 與秦·楚·三晉合謀以伐齊 齊兵敗 湣王 出亡於外 燕兵獨追北 入至臨淄 盡取齊寶 燒其宮室宗廟 齊城之不下者 獨唯聊·莒·即墨 其餘皆屬燕 六歲”

44) 『戰國策』 卷30 燕策2, “昌國君樂毅為燕昭王合五國之兵而攻齊 下七十餘城 盡郡縣之以屬燕 三城未下 而燕昭王死 … 齊田單欺詐騎劫 卒敗燕軍 復收七十城以復齊”

하고 궁실과 종묘를 불살랐다. 제가 연에 침략해 저지른 일을 그대로 설욕했던 것이었다. 제의 여러 성중에 함락되지 않은 것은 오직 요, 거, 즉묵 등 3개성에 불과하였다. 다만 제의 3개성이 함락되지 않은 상태는 6년간이나 지속되어 연이 제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제는 다시 살아나고 연은 다시 약소국의 위치로 떨어진다.

곧 제의 3개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왕이 재위 33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인 연혜왕이 즉위한다. 혜왕이 태자로 있을 때에 악의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혜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 악의를 신임하지 않아 기겁으로 하여금 악의가 맡고 있던 사령관직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악의는 조나라로 가버린다. 제의 전단은 즉묵에서 군사를 일으키어 연의 군사를 대패시키고 이어 연이 철수하자 제는 70여 성을 모두 되찾게 된다. 이 무렵 제의 민왕이 거성에서 죽자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가 바로 제양왕이고 연에서도 혜왕이 재위 7년 만에 죽자 무성왕이 즉위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의 동쪽에 있던 조선은 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 4. 연의 동호와 고조선 공격

연의 동쪽에 조선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료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부터 먼저 해 보기로 한다. 곧 연과 조선의 전쟁 이전에 조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에서 살펴 볼 수 있다.

C-①소진이 장차 합종하고자 북쪽으로 연문후에게 유세하며 이르기를, ‘연은 동쪽으로 조선과 요동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임호와 누번, 서쪽으로는 운중과 구원, 남쪽으로는 호타와 역수가 있습니다. 땅은 사방 2천 여리에 대강은 수십만 명이며, 수레는 7백승에 기마는 6천 필 게다가 식량은 10년을 지탱할 만합니다.’<sup>45)</sup>

C-①은 전국시대 대표적인 종횡가의 한 명인 소진이 연문후 28년 곧 기원전 334년에 유세한 내용이다. 당시 연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연의 북쪽에는 동호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46)</sup> 지리명칭의 순서는 병렬적 관계로 조선과 요동, 임호와 누번, 운중과 구원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하천명은 호타와 역수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와 누번이 있으며 서쪽에는 운중과 구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와 역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중에 호타와 역수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주장<sup>47)</sup>이 있다. 하지만 이상의 기사에서 운중과 구원이 두 번이나 순서가 바뀌지 않고 나와 있으며 임호와 누번도 『사기』 흉노열전에서 그 순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sup>48)</sup> 종족명은 연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하천은 바라보는 방향에서 그 순서를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趙가 燕을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 호타와 역수의 순서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족명과 지

45) 『戰國策』 卷29 燕策1 蘇秦將為從 北說燕文侯, “蘇秦將為從 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七百乘 騎六千匹 粟支十年”

46) 『史記』 卷43 趙世家 武靈王 19年, “自常山以至代 上黨 東有燕 東胡之境”

47) 송호정, 「先秦文獻에 기록된 古朝鮮 사회와 주민집단」, 『역사와 담론』 61, 2012, 233쪽.

48) 『史記』 卷110 匈奴列傳, “晉北有林胡樓煩之戎 燕北有東胡山戎”

명인 조선과 요동도 그 순서대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은 연과 인접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음의 사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C-②동호는 대택에 있고 이인은 동호의 동쪽에 있다. 맥국은 한수의 동북쪽에 있고 땅이 연에 가까워 연이 이를 멸하였다.<sup>49)</sup>

C-③연은 갈석에 의해 塞를 이루고 사곡에 의해 끊기었으며 遼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sup>50)</sup>

C-④연은 물러서면 사막을 등지고 나아가면 역수에 닿으며 서쪽으로 군도에 이르고 동으로 遼에 이르렀다.<sup>51)</sup>

C-⑤노관이 배반하니 연인 위만이 망명하여 무리 천여인을 모아 遼에 있으며 진고지에 거주하였다.<sup>52)</sup>

C-⑥처음 연나라는 전성기일 때 일찍이 진번 조선을 공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었으며 鄣塞를 쌓았다.<sup>53)</sup>

위 C-②의 기사에서 동호의 동쪽에 夷人이 있고 맥국은 연에 가까워 연이 이를 멸망시키었다고 나와 있다. 동호는 흥노의 동쪽에 있어 동호라는 명칭이 붙었고 오환의 선조로 알려진 유목민족이었다.<sup>54)</sup> 흥노는 상곡군에서 동으로 예맥조선에 접해 있었다.<sup>55)</sup> 위 기사 C-②는 상곡 동쪽에 있는 맥국이 멸망한 것을 알려준다. C-③의 기사는 연이 갈석으로 塞를 이루고 사곡에 의

49) 『山海經』 卷11 海內西經, “東胡在大澤 夷人東胡東 貊國在漢水東北 地近于燕滅之”

50) 『鹽鐵論』 卷9 險固, “燕塞碣石 絕邪谷 繞援遼”

51) 『博物志』 卷1, “燕 卻背沙漠 進臨易水 西至軍都 東至於遼”

52) 『前漢紀』 卷14, “盧綰之反也 燕人衛滿亡命 聚黨千餘人 在遼居秦故地”

53) 『史記』 卷115 朝鮮列傳, “自始全燕時 嘗略屬真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54) 『史記』 卷110 匈奴列傳, “東胡 其後爲鮮卑 烏丸 服虔曰 在匈奴東 故曰東胡”

55) 『史記』 卷110 匈奴列傳,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 以往者 東接穢貉朝鮮”

해 끊기었으며 遼에 의해 둘러싸인 정황을 보여 준다. 여기서 사곡은 갈석과 가까운 연산산맥으로 보여 지며 요는 연산산맥 넘어 요서와 요동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연이 요와 인접해 있다는 내용은 C-④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만이 망명하여 처음 간곳은 遼임이 C-⑤의 기사로도 확인된다. 연과 가장 근접해 있던 조선은 진번임이 위 C-⑥기사에서 알 수 있다. 또 C-⑥의 『사기』 조선열전에 의하면 연의 전성기 곧 ‘自始全燕時’에 연이 진번을 복속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진번을 요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56)</sup> 연의 전성기라면 기원전 311년부터 기원전 279년까지의 연소왕 시기에 해당한다. 다음의 사료를 보자.

C-⑦그 후 연에 현장 진개가 있어 胡에 인질로 삼았는데 胡는 깊이 그를 신임하였다. 진개가 돌아오자마자 동호를 습격해 깨트리자 동호는 천여 리나 퇴각하였다. … 연 역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襄平에 이르며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두고 胡를 막았다.<sup>57)</sup>

C-⑧위략에서 이르기를 ‘옛날에 기자 후손인 조선후는 周가 쇠퇴하자 燕이 스스로 왕을 칭하는 것을 보고 동쪽을 경략하려고 하였다. 조선후도 또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逆擊燕해서 주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그 대부 禮가 간하니 그만 두었다. 禮로 하여금 서쪽으로 연에 가서 유세하게 하니 연이 그만 두고 공격하지 않았다. 후에 자손이 점점 교학해져

56) 윤병모, 「건창 동대장자유적과 고조선」, 『유라시아문화』 4, 유라시아문화학회, 2021, 72쪽.

57) 『史記』 卷110 匈奴列傳, “其後 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却千餘里 …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以拒胡”



연이 이에 장군 진개를 보내어 그 서방을 공격하여 2천여 리를 취하고 만반한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 조선이 드디어 약해졌다.<sup>58)</sup>

C-⑨ 조 무령왕은 구주를 넘고 대와 상곡을 지나 임호, 누번을 경략해 멸하였다. 연나라는 동호를 습격하여 천 리의 땅을 넓혔으며 요동을 건너 조선을 침공했다.<sup>59)</sup>

C-⑩ ‘북쪽으로 연의 요동을 유람하실 수 있고, 남쪽으로 월의 회계를 살펴보실 수 있으니 이것은 활을 쏘는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sup>60)</sup>

C-⑦의 기사에서 진개는 연소왕 때의 사람으로 그가 동호를 격파하고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기원전 325년 진나라 혜문왕이 왕을 칭하면서 다른 제후들도 왕을 칭하였는데 연의 易王은 그 10년인 기원전 323년에 왕을 칭하였다. 그럼으로 진개가 조선에 침략한 것은 조 무령왕이 호북기사 제도를 도입한 기원전 307년 이후에 해당한다. 연의 고조선 침공을 기원전 300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61)</sup>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⑩의 『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281년인 초 경양왕 18년에 초왕이 북쪽으로 간다면 연의 요동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C-⑩의 기사를 고려한다면 연이 요동을 소유한 시점은 기원전 281년 이전의 일임을 알 수 있

58)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與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汗 汗爲界 朝鮮遂弱”

59) 『鹽鐵論』卷8 伐功, “趙武靈王踰句注 過代谷 略滅林胡 樓煩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60) 『史記』卷40 楚世家, “北遊目於燕之遼東而南登望於越之會稽 此再發之樂也”

61) 서인한, 앞의 책, 2005, 39쪽.

다. 따라서 연의 동호 및 고조선 침공은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전 281년 사이의 일로 판단할 수 있다.

연의 조선 침공에 대해 그 시점을 연의 제에 대한 정벌 이전인 기원전 299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62)</sup> 반면에 연이 제를 공격한 기원전 284년 이후인 연 소왕 28년에서 33년 사이<sup>63)</sup>로 기원전 282년부터 280년 때의 일<sup>64)</sup>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진개의 조선 공격은 연이 제를 공격한 이듬해인 기원전 282년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65)</sup> A-⑥의 『좌전』에서 연에게 산융은 병적인 존재라고 한 것을 보아 산융 뒤에 나타나는 연의 동호와 고조선에 대한 침략은 연이 제를 정벌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면한 눈앞의 숙적인 제를 정벌하지 않고 북방에 눈을 돌려 동호와 고조선을 침공한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전 281년 이전에 조선은 연과 접해 있었고 C-⑦, C-⑧, C-⑨의 기사에서 보이는 대로 연의 조선 침략은 기원전 281년 이전의 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C-⑦의 기사에서 ‘其後’ 이후에 연도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襄平에 이르렀고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에 군을 두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양평은 『한서』 지리지 요동군 조에도 나오지만 C-⑦의 경우 양평은 장성의 끝자락으로 지금의 요하 서쪽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襄平의 고칭은 纒坪으로 이 纒坪이 요동이 아닌 요서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66)</sup>

진의 통일 후에 진은 조와 연의 장성을 연결하여 임조로부터 요동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구축한다.<sup>67)</sup> 하지만 C-⑦의 기사에서

62) 이성재, 「고조선과 燕의 전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6, 54쪽.

63) 배진영, 앞의 책, 2009, 325쪽.

64) 陳平, 앞의 책, 1995, 213쪽.

65) 박준형, 앞의 논문, 2012, 18쪽.

66) 陳平, 『燕文化』, 文物出版社, 2006, 197쪽.

67) 『史記』 卷88 蒙恬列傳, “秦已并天下 乃使蒙恬將三十萬 … 築長城 因地形 用制險

연은 ‘築長城’이라며 장성을 구축한 반면에 『사기』 조선열전에서는 ‘築鄣塞’로 나온다. 따라서 ‘築鄣塞’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사기』 조선열전에서 나오는 진번은 연의 장성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곧 연장성은 ‘拒胡’의 대상이었지 조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연의 ‘拒胡’ 대상에 요서와 요동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본다면 요동군을 포함한 연의 5군은 동호를 대상으로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연의 현장인 진개가 동호를 무찌르고 동호를 천여 리나 퇴각시키며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 등 5군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C-⑧의 기사에서 나오는 ‘逆擊燕’의 의미는 조선이 연의 공격을 받고 다시 반격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 C-⑧의 기사에서는 진개를 보내어 조선의 서방을 공격하여 2천여 리를 취하고 만반한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으며 조선이 드디어 약해졌음을 전하고 있다. C-⑨의 기사에서는 연이 동호를 습격하며 천 리의 땅을 넓히고 요동을 건너 조선을 침공했다는 사실이 나온다. 『사기』 흉노열전과 『염철론』 별공편에는 연이 동호를 무찌르며 천 여리를 넓혔다는 내용인데 비해 『위략』에서는 조선을 공략해 2천여 리를 넓혔다고 나온다. 따라서 요서에는 진번이 있고 요동에는 준왕의 조선이 있어 이를 포함하면 모두 2천여 리가 된다는 의미이다.<sup>68)</sup> 그럼으로 연이 동호를 친 것과 연이 조선을 친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 진다. C-⑨의 기사에서 ‘度遼東’을 ‘渡遼水’로 보는 경우가 있다.<sup>69)</sup> 하지만 ‘度遼東’은 ‘渡遼東’이 아닌 ‘度’임으로 이때의 요동은 요하가 될 수 없고 요동이라는 육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C-⑩의 기사에서 연이 요동을 확보한 것은 기원전 281년 이전의 일이다. 때문에 C-⑨의 기사의 ‘度遼東’의 요동은 지금의 요서를 지칭한

塞 起臨洮 至遼東 延袤萬餘里”

68) 오현수, 앞의 논문, 2015, 48쪽.

69)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1990, 45쪽.

다고 할 수 있다. 또 진의 통일 후에 요동까지 장성을 쌓았다는 내용도 지금의 요서 동쪽 끝임을 인정할 수 있다.

C-⑪이 사건으로 진왕은 크게 노하여 더욱 병력을 증가하여 조에 보내고 왕전의 군대에게 조서를 내려 연을 치게 하였다. 열 달 만에 계성이 함락되자 연왕 희와 태자 단은 모두 정병을 이끌고 동쪽 요동으로 도망쳤다. … 진은 다시 군사를 몰아 연을 치고 5년이 지난 후에 진이 마침내 연을 멸망시켜 연왕 희를 사로잡았다.<sup>70)</sup>

C-⑫연왕 한광을 遼東王으로 옮기게 하고 燕將 장도는 초를 따라 조나라를 구원했고 관중에 들 때 함께 따랐으므로 장도를 연왕으로 세우고 계에 도움을 하게 하였다.<sup>71)</sup>

C-⑬연의 장수 장도를 연왕으로 삼아서 계현에 도움을 하도록 했다. 예전의 연왕이던 한광을 요동으로 옮기게 하여 그곳의 왕이 되게 하였으나 한광이 복종하지 않자 장도가 공략하여 무종에서 그를 죽였다.<sup>72)</sup>

C-⑭연왕 장도가 모반하자 대 땅을 공략하여 함락시켰다. 고조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연왕 장도를 사로잡았으며 태위 노관을 세워서 연왕으로 삼았다.<sup>73)</sup>

70) 『史記』 卷86 刺客列傳, “於是秦王大怒 益發兵詣趙 詔王翦軍以伐燕 十月而拔薊城 燕王喜 太子丹等盡率其精兵東保於遼東 … 秦復進兵攻之 後五年 秦卒滅燕 虜燕王喜”

71) 『史記』 卷7 項羽本紀, “徙燕王韓廣爲遼東王 燕將臧荼從楚救趙 因從入關 故立荼爲燕王 都薊”

72) 『史記』 卷8 高祖本紀, “燕將臧荼爲燕王 都薊 故燕王韓廣徙王遼東 廣不聽 臧荼攻殺之無終”

73) 『史記』 卷8 高祖本紀, “燕王臧荼反 攻下代地 高祖自將擊之 得燕王臧荼 卽立太尉盧縮爲燕王”

C-⑪은 진시황 암살 사건이 실패하자 진이 연을 공격하여 연의 도성인 계성이 함락하자 연왕과 태자가 요동으로 도망치고 이후 5년이 지난 후에 진이 연을 멸망시키는 사건을 보여 준다. C-⑫의 기사는 기원전 207년의 일로 연왕 한광을 요동왕에 봉하고 이어 장도를 연왕에 삼아 도움을 계에 정한 것을 알려 준다.<sup>74)</sup> C-⑬의 내용은 기원전 206년 한고조 원년에 연 장수 장도를 연왕으로 삼아 계현에 도움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왕 장도가 요동왕 한광을 무종에서 죽인 것은 기원전 206년의 일이었다.<sup>75)</sup> C-⑭의 기사는 기원전 202년에 일어난 일로 연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제압하고 노관을 연왕으로 삼은 내용이다.

정리하자면, 한광은 본래 농민반란군 陳勝의 부하였으나 연을 함락시킨 후에 스스로 연왕이 된다. 항우가 진을 멸망시킨 뒤에 연은 연과 요동으로 양분되어 연나라 장수인 장도를 연왕으로 삼아 계현에 도읍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연왕이었던 한광을 요동왕에 봉하려 하자 한광이 복종하지 않자 장도가 한광을 무종에서 살해하고 연왕이 된다. 장도는 본래 한광의 부하였으나 항우를 따라서 관중에 들어갔다가 한고조를 따른다. 연왕 장도가 기원전 202년인 한고조 5년에 반란을 일으켜 代 땅을 함락시킨다. 한고조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연왕 장도를 사로잡았으며 한고조의 고향친구이며 태위였던 노관을 세워 연왕으로 삼는다. 또 기원전 195년에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한은 노관을 공격하였다. 이어 한고조는 자신의 여덟 번째 아들인 劉建을 세워서 연왕으로 삼았다. 결국 연왕은 한광, 장도, 노관, 유건

74) 『史記』 卷16 秦楚之際月表, “韓廣爲趙略地至薊 自立爲燕王始”

75) 『史記』 卷16 秦楚之際月表, “燕分爲遼東 王韓廣始 故燕王 都無終 藏荼擊廣無終 滅之 屬燕”

등으로 왕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C-⑮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주발은 상국의 신분으로 변패를 대신하여 부대를 이끌고 계현을 함락시켰고 노관의 대장 지, 승상 언, 군수 경, 태위 약과 어사대부 시를 생포하고 渾都를 도륙하였다. 상란에서 노관의 군대를 대파하였고 또 저양에서 노관의 군대를 격파하고는 곧장 장성까지 추격하였다. 상곡 12현, 우북평 16현, 요서요동 29현, 어양 22현을 평정하였다.<sup>76)</sup>

C-⑮ 기사는 한고조12년인 기원전 195년에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한은 변패와 주발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가 노관을 공격한 내용이다. 한나라 군은 장성까지 노관의 군대를 추격하나 그 이듬해에 한고조가 죽자 노관은 고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흉노로 망명한다. 노관은 흉노로 간 다음에도 상곡 이동에 출몰하여 한을 괴롭힌다.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로 가자 위만도 그 무리 천여 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망명하였다.<sup>77)</sup> 이로 볼 때에 노관과 위만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여 진다. C-⑮ 기사에서 한나라 군이 노관을 추격하며 상곡부터 요동까지 5개 군 79현을 평정하였다는 내용이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군현수와 비슷하다며 이 시기에 이미 한이 5개 군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이 있다.<sup>78)</sup> 그렇지만 연왕 희가 연의 도성

76) 『史記』 卷57 絳侯周勃世家, “燕王盧綰反 勃以相國代樊噲將 擊下薊 得綰大將抵丞相儼·守陘·太尉弱·御史大夫施 屠渾都 破綰軍上蘭 復擊破綰軍沮陽 追至長城 定上谷十二縣 右北平十六縣 遼西·遼東二十九縣 漁陽二十二縣”

77) 『史記』 卷115 朝鮮列傳,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78) 구본희, 『戰國~秦漢代 遼東郡과 古朝鮮 西界의 변화』,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2017, 42쪽.

인 계현이 함락하자 요동으로 도망갔다는 사실과 연왕 한광을 요동왕으로 임명하려 한 것과 장도가 한광을 무종에서 죽인 사실을 보아 당시 요동은 지금의 요동이라 볼 수 없고 계현이 위치한 무종 일대라고 볼 수 있다. 계현은 지금 천진시에 소속된 지명으로 무종도 계현 동북 가까이에 있었다.<sup>79)</sup> C-⑮ 기사에서 요서와 요동이 29현으로 나오지만 『한서』 지리지에는 32개현이 나와 있어 3개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한서』 지리지의 기록은 기원후 2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지 그 이전 시기를 기록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sup>80)</sup> 요동군이 동북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흉노에 대한 대응 조치로 그 시기는 기원전 129~128년인 한무제 시기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sup>81)</sup> 앞서 한광을 요동왕으로 임명했던 요동국의 도읍은 무종으로 현재 천진시 계현이며 이것이 요하 이동으로 옮긴 것은 한무제 시기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82)</sup> 또 아래의 사료를 검토하여 보아도 연·진·한대 초기 요동을 지금의 요하 이동이라기보다는 요서를 지칭하는 사례가 많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D-①그 후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여 일당 수천 명을 거느리고 흉노에 투항한 다음 상곡 이동에 출동하여 주민을 괴롭혔다.<sup>83)</sup>

D-②흉노가 날로 교만해져 해마다 변경지대를 침범해와 백성들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아주 많았는데 운중과 요동이 가장 심했다.<sup>84)</sup>

79) 孫進己 王綿厚 主編, 『東北歷史地理1』,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314쪽.

80)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출판부, 2012, 36쪽.

81) 권오중, 앞의 책, 2012, 37쪽.

82) 권오중, 「古代 遼東郡의 位置問題 試論」,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84쪽.

83) 『史記』 卷110 匈奴列傳, “後燕王盧綰反 率其黨數千人降匈奴 往來苦上谷以東”

84) 『史記』 卷110 匈奴列傳, “匈奴日已驕 歲入邊 殺略人民畜產甚多 雲中遼東最甚”

- D-③그 이듬해 가을 흉노의 기병 2만이 한에 들어와 요서 태수를 죽이고 2천여 명을 잡아갔다.<sup>85)</sup>
- D-④상곡에서 요동까지는 땅은 멀고 인민이 적었으며 자주 침입을 당하였다.”<sup>86)</sup>
- D-⑤상곡부터 요동에 이른 지역은 땅은 넓으나 인민은 적다.<sup>87)</sup>
- D-⑥어양 이동은 본래 변새가 갖추어져 있지만 땅이 오랑 개와 접해 있어 貢稅가 미약하다.<sup>88)</sup>
- D-⑦유주 이북으로 부터 요수 2천여 리 사이에 州縣이 없다.<sup>89)</sup>

연왕 노관이 흉노로 투항한 이후 상곡 이동은 늘 흉노의 침공에 노출된 것을 보여준다. D-②의 기사는 한문제와 경제의 시기 기사로 흉노의 침범이 운중과 요동이 특히 심하다고 전하고 있다. D-③의 기사는 한무제 재위 13년인 기원전 128년에 일어난 일로 한무제 초기에도 흉노가 요서를 공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D-④와 D-⑤의 기사에서 상곡에서 요동까지는 땅은 넓으나 인민이 적고 계속 흉노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 준다. D-⑥의 기사는 어양 동쪽부터 흉노와 접해 있어 세금이 적게 걷힘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燕과 代 지역은 늘 흉노의 침공으로 고통을 받았고<sup>90)</sup> 한은 연과 대에서 군사를 발진해 흉노를 공격하였다.<sup>91)</sup> D-⑦의 기사는 비록 후대의 일이지만 전한대의 사실과 다름이 없다. 곧 645년 당태종의 고구려

85) 『史記』 卷110 匈奴列傳, “其明年秋 匈奴二萬騎入漢 殺遼西太守 略二千人”

86) 『史記』 卷129 貨殖列傳, “東北邊胡 上谷至遼東 地踔遠 人民希數被寇”

87) 『漢書』 卷28 地理志 燕地, “上谷至遼東 地廣民希”

88) 『後漢書』 卷26 列傳 伏湛子隆, “漁陽以東 本備邊塞 地接外虜 貢稅微弱”

89) 『舊唐書』 卷77 列傳 韋挺, “謂挺曰 幽州以北 遼水二千餘里 無州縣”

90) 『漢書』 卷94 匈奴傳, “冒頓既立 … 遂侵燕代”

91) 『史記』 卷110 匈奴列傳, “會燕救至 匈奴乃去 … 李息出代郡 擊胡”



침공시 饋運使를 맡은 위정이 유주 이북에서 요하까지 주현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C-⑤의 한나라 군에 의한 5군, 79현 평정 기사는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한 시점인 기원전 91년 즈음의 사실을 마치 옛날 일로 소급해서 기록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上谷 동쪽에 예맥조선이 접하여 있다고 한 것을 거론할 수 있다.<sup>92)</sup> 이에 따라 요동의 위치가 난하 유역에서 대릉하 유역으로 옮긴 것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이후라고 볼 수 있다.<sup>93)</sup>

D-⑧당시 우연히 요동의 高廟가 불에 탔다.<sup>94)</sup>

D-⑨무제 건원 6년 6월 정유에 요동의 高廟가 불에 탔다.<sup>95)</sup>

또한 D-⑧과 D-⑨의 사료에서 나오는 고묘는 기원전 135년에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한고조 廟를 지칭한다. 고묘의 소재지는 대부분의 경우 郡의 치소에 두는 경우가 많다. 『한서』 지리지에는 고묘가 요서군 且慮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96)</sup> 이 차리는 지금 요서의 朝陽으로 비정됨으로<sup>97)</sup> 요동고묘는 당연히 요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요동고묘에 대한 在요서설은 이미 북한학계에 의해 주장<sup>98)</sup>되기도 했으며 본고도 이와 같은 입장에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무제 이전 요동은 지금의 요서에 있었고 한의

92) 『史記』 卷110 匈奴列傳,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

93) 李盛珪, 「遼東郡의 位置의 變遷」, 『古代文化』 1994-2, 京都 古代學協會, 1994, 14~23쪽.

94) 『史記』 卷121 儒林列傳, “是時遼東高廟災”

95) 『漢書』 卷27 五行志, “武帝建元六年六月丁酉 遼東高廟災”

96) 『漢書』 卷28 地理志 遼西郡, “遼西郡 秦置 … 縣十四 且慮 有高廟”

97) 稻葉岩吉, 『漢代の滿洲』, 『滿洲歷史地理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129~131쪽; 孫進己 王綿厚 主編, 『東北歷史地理1』,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300쪽.

98) 강인숙,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면」,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195쪽.

본격적인 요동군 운영은 위만조선이 멸망한 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5. 진과 고조선의 전쟁

진과 고조선의 전쟁 원인은 연 전성기 시절 연나라의 영토였던 요동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것과 나라를 잃은 중원계 유민이 조선 지역으로 망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sup>99)</sup> 결국 진의 對조선 전쟁은 진이 연과 제 등 전국 6웅을 격멸하고 통일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진이 천하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고조선은 연과 계속 대립과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대륙 내부 깊숙이 존재하던 전국 시절의 진은 점차 힘을 키워 중국을 통일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진의 천하통일 사업의 주역은 바로 진시황으로 진시황은 연과 제 등을 모두 멸망시키고 최초의 중국 황제로 등극하게 된다. 이러한 통일된 진은 주변의 이민족에게도 무언의 압박을 주었고 또 이미 전국 시절 연과 계속 대립과 갈등 관계를 가진 조선에게는 크나큰 압박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진의 조선에 대한 관계의 서막을 연 진시황의 통일 사업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

기원전 230년인 진시황 17년에 진은 한을 공격해서 한왕 안을 사로잡고 멸망시키어 군을 설치하였다. 기원전 228년인 진시황 19년에는 조를 멸망시키었으며 그 22년에는 위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기원전 223년인 진시황 24년에 진은 20만 대군으로 초를 공격하였으나 초의 명장 항연에게 격파당하자, 노장 왕

99) 조원진, 앞의 논문, 2018, 198쪽.

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나라의 총병력인 60만 대군으로 다시 공격해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진시황 25년인 기원전 222년에 진은 연의 요동을 공격하여 연왕 희를 사로잡아 연을 멸망시키고 이때 월의 군주가 항복해 그 땅에 회계군을 두었다. 진시황 26년인 기원전 221년에 진은 연의 남쪽을 따라서 제를 공격해 제왕 건을 사로잡아 제를 멸망시키었다. 이리하여 진시황은 정복사업을 시작한지 약 10년이 지난 재위 26년 만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진시황은 천하를 36군으로 나누고 동쪽으로는 요동에 이르러 조선과 접하게 되는 것이었다.

E-①(26년)천하를 나누어 36군으로 삼고 ... 땅이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러 조선과 닿았다. ... 북쪽으로는 황하를 근거지로 塞를 삼았고 음산을 끼고 요동에까지 이르게 하였다.<sup>100)</sup>

E-②秦이 천하를 병합한 뒤에 몽염에게 장성을 쌓게 하여 요동에 이르렀다. 이때 조선왕부가 왕이 썼는데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진에 복속하였으나 조회는 하지 않았다.<sup>101)</sup>

E-③(秦이) 성을 쌓았는데 서쪽으로는 유사에 닿고 북쪽으로는 遼水에 이어지며 동쪽은 조선에 접한다.<sup>102)</sup>

E-④진이 연을 멸하자 遼東外徼에 소속시켰다.<sup>103)</sup>

E-⑤秦이 천하를 병합하고 동쪽으로 沛水를 건너 조선을 멸하였다.<sup>104)</sup>

100) 『史記』卷6 秦始皇本紀第6, “分天下以爲三十六郡 ... 地東至海暨朝鮮 ... 北據河爲塞並陰山至遼東”

101) 『三國志』卷30 魏書烏丸鮮卑東夷傳第30 韓傳所引「魏略, 曰及秦并天下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102) 『淮南子』卷18 人間訓, “將築脩城西屬流沙 北擊遼水東結朝鮮”

103) 『史記』卷115 朝鮮列傳, “秦滅燕, 屬遼東外徼”

E-⑥남월과 조선은 秦나라 전성기에 신하로 內屬했다.<sup>105)</sup>

E-⑦대부가 말하길 지난날 四夷가 모두 강성하여 다 같이  
중국을 침범하였는데 조선은 徼를 넘어 燕의 동쪽  
땅을 빼앗았다.<sup>106)</sup>

기원전 221년 진의 통일후 진이 기원전 207년 멸망하기 까지 존속기간이 14년 밖에 되지 않아 진의 조선침공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몇몇 사료에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우선 E-①과 E-②의 기사에서 진의 장성이 요동 까지 이른 것을 보여준다. 또 조선이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조선이 진에 전략적으로 복속하였으나 조희에는 응하지 않았음을 알게 해 준다. E-③에서는 진의 장성이 북쪽으로 요하에 이어지며 동쪽으로는 조선과 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원문에 ‘東擊遼水’가 아니고 ‘北擊遼水’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 장성은 요하 북쪽의 지금 서요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sup>107)</sup> 그럼으로 동쪽으로 조선과 접함은 서요하 동쪽에서 조선과 대치중임을 알려 준다.

그런데 E-④에서는 진이 연을 멸망시키고 그곳을 요동외요에 속하게 한다. 여기서 요는 목책이나 자연적 경계인 강을 뜻한다.<sup>108)</sup> 요동외요는 요동의 밖에 있는 요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외요는 진 행정력이 미약한 지역의 진과 조선 경계가 되는 곳에 설치된 것<sup>109)</sup>으로 조선이 진의 변경 치안관리 범위에 속했

104) 『鹽鐵論』 卷8 誅秦, “秦既并天下東絕沛水並滅朝鮮”

105) 『史記』 卷25 律書, “南越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

106) 『鹽鐵論』 卷7 備胡, “大夫曰 往者 四夷俱強 並爲寇虐 朝鮮踰徼 劫燕之東地”

107) 홍승현,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와 국가 성격」,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4

108) 『史記索隱』 卷117 司馬相如列傳, “徼塞也 以木柵水爲蠻夷界”

109) 오현수, 앞의 논문, 2018, 51쪽.

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sup>110)</sup> 곧 외요는 요의 밖에 있는 내속<sup>111)</sup> 지위에 있는 족속을 가리킨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속은 정치적으로 복속되는 속국을 말하는 일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sup>112)</sup> 또 내속은 중국의 관점에서 본 주관적 표현이란 주장도 있다.<sup>113)</sup>

E-⑤에서는 진이 천하를 통일하고 패수를 건너 조선을 멸망시켰다는 기사가 나와 있다. 이는 E-⑥과 E-⑦에서 조선이 그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E-⑥은 한 효문제 즉위의 기사로 조선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은 당시 진에 신속된 이민족 국가를 말한다는 주장도 있다.<sup>114)</sup> 이는 E-② 기사 ‘복속’의 의미와도 통한다. 그럼으로 E-⑤의 조선 멸망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⑦의 기사에서는 오히려 조선이 요 곧 요동외요를 넘어 연의 동쪽 땅을 빼앗은 점을 보여 준다. 조선이 진한교체기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연의 동쪽을 빼앗은 것이다. 이는 E-④ 기사에서 진이 연을 멸하자 그곳을 요동외요에 소속시켰다는 점에서 조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동외요 안쪽인 서쪽을 조선이 점령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10) 宋眞, 앞의 논문, 2014, 56쪽.

111) 『後漢書』 卷86 南蠻西南夷列傳, “延光元年 九眞徼外蠻獻內屬 三年 日南徼外蠻復來內屬”

112) 박준형, 앞의 논문, 2012, 27쪽.

113) 박대재, 「古朝鮮의 왕과 燕과의 전쟁」,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49쪽.

114) 金南中, 앞의 논문, 2002, 61쪽.

## 6. 맺음말

이상에서 연과 고조선의 전쟁 그리고 진과 고조선의 전쟁을 살펴보았다.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은 산용과 동호에 대한 문제와 제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 그 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연이 산용의 공격을 받자 제가 연을 통해 산용을 공격하거나 산용이 연을 통해 제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연은 산용과 제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다. 연을 괴롭힌 산용은 춘추시대 중 말기에 사라지고 대신 동호가 등장한다. 곧 연과 제는 상호 견제 또는 직접 전쟁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전국시대에 들어와 연은 전국칠웅의 하나로 나타난다. 『전국책』에 의하면 당시 연의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와 누번이 있으며 서쪽에는 운중과 구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와 역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호타와 역수의 기재 순서는 趙가 燕을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 그 순서를 기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족명과 지명인 조선과 요동도 그 순서대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좌전』에서 연에게 있어 산용은 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아 산용 뒤에 나타나는 동호와 조선에 대한 연의 침략은 연이 제를 정벌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과 가장 근접해 있던 조선은 진번으로 『사기』 조선열전에 연의 전성기에 위만이 진번을 복속시킨 사실이 나온다. 또 『사기』 조선열전에서 나오는 진번은 연의 장성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연장성은 ‘拒胡’의 대상이었지 조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기』에는 한나라 군이 상곡 12현, 우북평 16현,

요서와 요동 29현, 어양 22현을 평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기』 저자인 사마천 당대의 사실을 마치 옛일처럼 소급 적용해 기록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동의 위치가 난하 유역에서 대릉하 유역으로 옮겨 간 것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또 진이 연을 멸망시키며 그 지역을 遼東外徼에 속하게 한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여기서 徼는 목책이나 자연경계인 강을 뜻하며 요동외요는 요동의 밖에 있는 요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회남자』에서 ‘東擊遼水’가 아니고 ‘北擊遼水’로 나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 장성은 요하 북쪽의 지금 서요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진한교체기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연의 동쪽을 빼앗는다. 곧 조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동외요 안쪽인 서쪽을 조선이 점령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 『舊唐書』 中華書局 1982  
『史記』 中華書局 1982  
『三國志』 中華書局 1982  
『漢書』 中華書局 1982  
『後漢書』 中華書局 1982  
『管子』 上海古籍出版社 2015  
『山海經』 天地出版社 2019  
『鹽鐵論』 上海人民出版社 1974  
『逸周書』 中華書局 1980  
『戰國策』 中華書局 2016  
『前漢紀』 吉林出版集團 2005  
『淮南子』 上海古籍出版社 2016

### 2. 논문 및 단행본

강인숙,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변」,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2\\_1423@N2M](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2_1423@N2M)

권오중, 「古代 遼東郡의 位置問題 試論」,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7\\_0606@N2M](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7_0606@N2M)



-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출판부, 2012  
<http://uci.or.kr//G901:A-0006409995@N2M>
- 金南中, 「燕·秦의 遼東統治의 限界와 古朝鮮의 遼東 回復」,  
『白山學報』 62, 2002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7\\_0665@N2M](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7_0665@N2M)
-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1990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7\\_0942@N2M](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7_0942@N2M)
-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http://uci.or.kr//G701:B-00099030662@N2M>
- \_\_\_\_\_, 「고조선과 제의 해상교류와 요동」, 『한국사학보』  
2014
- \_\_\_\_\_,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  
총』 55, 2017  
<https://doi.org/10.23037/dyn.2017..55.002>
- 박준형,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 108, 2012  
<http://uci.or.kr//G704-001261.2012..108.009>
- 배진영, 「春秋時期 燕國 對外關係의 變化」, 『中國史研究』 17,  
2002  
<http://uci.or.kr//G704-000580.2002.17..006>
- \_\_\_\_\_,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 25,  
2003  
<http://uci.or.kr//G704-000580.2003.25..004>

- 배진영,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中國史研究』 36, 2005
- \_\_\_\_\_, 『고대 北京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2009
- 서인한,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901:A-0006103117@N2M>
- 송호정, 「先秦文獻에 기록된 古朝鮮 사회와 주민집단」, 『역사와 담론』 61, 2012  
<http://uci.or.kr/G704-001545.2012..61.004>
- 宋眞, 「戰國·秦·漢時期 遼東郡 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76, 2014  
<http://uci.or.kr/G704-000848.2014..76.002>
- 오현수, 「『管子』에 등장하는 ‘穢貉’과 ‘發朝鮮’의 역사적 실체」, 『사림』 43, 2012  
<http://uci.or.kr/G704-001587.2012..43.004>
- \_\_\_\_\_,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韓國史學報』 61, 2015  
<http://uci.or.kr/G704-000690.2015..61.008>
- \_\_\_\_\_, 「사기 조선열전 기재 ‘秦故空地上下鄣’에 대한 검토」, 『韓國史學報』 70, 2018  
<http://doi.org/10.21490/jskh.2018.02.70.45>
- 윤병모, 「건창 동대장자유적과 고조선」, 『유라시아문화』 4, 유라시아문화학회, 2021
- 이광명, 「전국 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2019  
<http://uci.or.kr/I804:21031-200000177661@N2M>
- 李盛珪, 「遼東郡の位置の變遷」, 『古代文化』 1994-2, 京都 古代學協會, 1994

- 전대준, 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전준현,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조원진,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 『사학연구』 129, 2018  
<http://uci.or.kr/I410-ECN-0101-2018-911-001917505@N2M>
- \_\_\_\_\_,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先史와 古代』 62, 2020  
<https://doi.org/10.23024/pah.2020..62.35>
- 陳平, 『燕史紀事編年會按』 下冊, 北京大學出版社, 1995

(Abstract)

The war between Yan, Qin and Kochosun  
during the period of Ancient China and Korea

Yoon, Byoung-mo

The first document in which the name 'Choseon' appears is 『Guanzi』 . According to 『Guanzi』 , the name 'Choseon' already appeared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BC. It is reasonable to view BalChoseon at this time as Bohai's Choseon, unlik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In some cases, when Yan was attacked by Shanrong, Qi attacks Shanrong through Yan, or Shanrong attacks Qi through Yan.

Shanrong, who tormented Yan, disappeared in the middle and end of the Chunqiu period, and Donghu appears instead. Yan and Qi developed into a stage where they attacked each other through mutual checks or direct wars. Yan was in a major civil war in 316 BC, and Yan was invaded by Qi. Yan, on the other hand, sets out to conquer Qi in 284 BC. Capture Renzi, the capital of Qi.

To the east of Yan at that time were Choseon and Liaodong. Among them, the order of Hutuo and Yishui was recorded in the direction of viewing. Therefore, the tribal names Choseon and Liaodong were also written in order. The invasion of Donghu and Choseon was after Yan conquered Qi.

There is a fact that Wiman subjugated Jinbeon in Yan's heyday. Therefore, Choseon, which Yan invaded and destroyed, should be regarded as Jinbeon. Jinbeon was not included in Yan's Great Wall.

Qin overthrew Yan and makes it belonged to Liaodongwaijiao. The Qin Great Wall reached now XiLiaohe north of Liaohe. Choseon took advantage of the chaotic period of the Qin-Han transition to usurp Yan's east. After Qin destroyed Yan, Choseon took over the interior of Liaodongwaijiao.

Keywords : Old Choseon, Yan, Shanrong, Qi, Qin, Jinbeon,  
Donghu, Liaodong, Liaoxi, Xiangping

